

블루버튼 프로젝트

블루버튼 프로젝트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테러리즘,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테러리즘과의 전쟁선언, 이러한 모든상황들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더 깊은차원의 인식이 절실히 필요함을 전달하고, 특히 지난 가을 미국정부의 이라크 침공준비와 이에 따른 외교정책에 관한 정당성을 질책하고 또한 기본적인 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부 방침의 부당함을 심각하게 비판하고 저항하는 움직임을 뜻하고자 시작되었다.

블루버튼 프로젝트는 결코 특정 국가나 또는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것에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대신 문구나 모양의 새김을 배제한채, 즉 특정 언어를 사용 하지않으면서, 지구의 보편적 색깔을 반영하는 선명한 파랑색만으로서 세계의 평화, 자유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표현하려는데에 목적을 두었다. 블루버튼의 이러한 상징성은 보는 사람들로 부터 의문을 갖게하고, 그러므로서 이뤄지는 대화를 통한 계몽을 꾀함에 있다.

2003년 4월